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0.27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4일 뉴욕증시는 아시아, 유럽 증시의 폭락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위협으로 장초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력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며 낙폭을 회복.

장중 500p 이상 급락했던 다우존스지수는 장후반 낙폭을 줄이며 312.30p(3.6%) 하락한 8,378.95로 마감. 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312.30p(3.59%) 밀린 876.77에 마감. 나스닥지수는 51.88p(3.23%) 내린 1,552.03에 장을 마감.

개장 전 다우지수선물은 가격제한폭인 550p 폭락, S&P500은 가격제한폭인 60p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자극. 이날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를 의미하는 변동성지수(VIX)는 32% 폭등한 89.53에 이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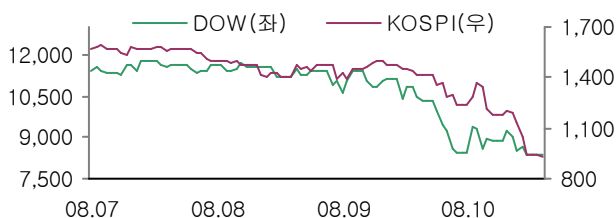
그러나 미국의 9월 주택판매가 8월 대비 5.5% 증가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회복.

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가 증폭되며 수요 감소 전망이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감산 발표를 압도하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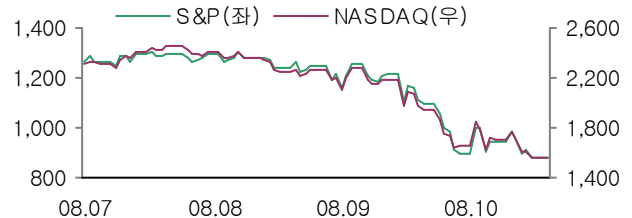
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전일대비 3.69달러(5.4%) 하락한 64.15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378.95	-3.59	-5.35	-0.85	-22.60	-26.17	-38.71
S&P(좌)	876.77	-3.45	-6.78	-2.50	-26.07	-30.00	-42.10
NASDAQ(우)	1,552.03	-3.23	-9.31	-5.91	-28.00	-31.93	-43.58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